

전남

개발효과 톡톡... 목포 원도심 활기

목포시가 원도심 개발을 위해 수립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돼 침체일로를 걸던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원도심은 지난 2000년 허당 신도시가 본격 개발되면서 정주인구와 상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공동화 현상을 보였다.

원도심 지역 17.6km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대성지구 등 7개 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앙시장지구 등 3개 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산·온금지구 등 25개 구역은 주택 재개발사업 ▲

각종 기반시설 들어서며 유동인구 증가
교통·주차시설 확충... 점포 입점도 활발

옛 용해아파트 등 5개 구역은 주택 재건축사업 등을 펼쳐왔다.

대성지구는 지난해 12월 보상에 들어가 토지 및 지장물영입권 보상이 88% 완료된 상태로, 주택공사가 오는 2012년까지 1천191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39만㎡(12만평)를 재개발하는 서산·온금지구에는 1천33세대 주택이 민자유치로 건립된다.

원도심 인구유입을 주도할 옛 중앙 시설시장 재건축사업의 경우 지난 5월 주택공사와 시장부지 주·관 북합건물 신축사업 협약을 체결, 오는 12월 착공한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목포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 ▲유달초교~조선내화간 아리랑고개 도로 ▲신안구청 입구 진입로 ▲철도 폐선부지 유행공원 5.7km 중 2.7km 조성 ▲기업은행 - 유달산우체국 간 도로 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은 이미 확충한 상태이다.

특히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역사문화관

▲노적봉 문화예술공원 ▲옛 한일은행 건물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 ▲동본원사 보수 및 주차장 ▲요트산업 기반시설 등을 구축했으며 ▲삼학도 복원화 사업 ▲어린이 바다체험과학관 건립 ▲감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원도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통해 젊음의 거리 등 13개의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7억5천만원의 선보조금을 지원해 50개 점포가 입점하는 등 자생신징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심 변연에 걸림돌이 됐던 교통과 주차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원도심이 활기를 띠고 있다"며 "관련사업들이 마무리되면 112년의 역사를 가진 원도심이 옛 명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19일 함평군 함평읍 함평엑스포공원에서 '2009 대한민국 국화대전'에 공개될 송례문 모양의 대형 국화 조형물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함평군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국화대전을 개최한다. <함평군 제공>

함평, 희귀나비 먹이식물 재배 성공

산호랑나비 등 대량증식... 서식지 복원 기틀 마련

함평군이 희귀나비인 산호랑나비, 사향 제비나비, 꼬리명주나비 등의 먹이식물 대량재배에 성공해 희귀나비 서식지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함평군 곤충연구소는 "지역에 서식하지 않은 희귀나비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 등황, 방풍 등 식물 3종의 종자번식을 통해 대량재배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꼬리명주나비와 사향제비나비의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은 경상도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자라는 종이며 등

황은 강원도 오대산 일대에 극히 제한적으로 자라는 종으로 사향제비나비의 먹이식물이다.

또 미나리와 식물인 방풍은 제주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산호랑나비 먹이의 일종이다.

함평군 곤충연구소는 이들 3가지 식물을 연구소에서 종자번식을 통해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1만㎡ 면적에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내년에도 면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호랑나비과 나비 가운데

대형 나비로 개체가 적어 희귀나비에 속하는 산호랑나비의 대량증식에 성공, 내년 열리는 '제 12회 함평 나비 축제'의 대표 나비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생태공원 단지에는 사향제비나비, 꼬리명주나비 등 번데기 500여 개가 자연 상태로 월동하고 있어 내년 봄에는 나비로 우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군 곤충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귀나비 서식지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비 매카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희기자 hwang@

해남, 성적 배제한 장학금 혜택 확대

'희망 장학금' '글로벌 리더 장학금' '봉사·선행 장학금' '기능장 장학금'

해남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 혜택이 확대됐다. 이들도 생소한 장학금이 많고 대상 범위도 훨씬 넓어졌다.

해남군은 최근 '해남군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장학혜택을 주는 방법을 논의해 희망 장학금 등 5개의 장학금을 신설했으며, 장학금과 선발방법도 상향 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설된 장학금 중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 장학금은 해남고 재학생 중 30

여 명을 선발해 60만원씩을 지급한다. 해남공고생을 위한 기능장 장학금과 초·중·고교생을 위한 예체능 특기자 장학금도 내년부터 1인당 20만~50만원씩 30여 명에게 준다.

송지종고, 북평상고 등 군 내 고교생에게 돌아가는 '봉사·선행 장학금'은 성적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장학생이 되는 길을 열었다. 또 해남군 출신 외국 유학생들에게도 내년부터 연간 1인당 500만원의 '글로벌 리더 장학금'이 지급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통 장례 곡소리 들리나요"

북면 '상여소리' 화순풍류문화큰잔치 대상

지난 14~18일 열린 2009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에서 북면 '상여소리'가 풍류대상을 차지했다.

풍류상은 청동면(풍년농사 응놀이)과 능주면(능주 들노래), 동면(전통혼례)이 선정됐으며, 으뜸상은 화순읍(화서도와 대리석불입상 전설), 도곡면(다산제),동북면(최씨부인 전설), 남면(모후산 재물천)이 수상했다.

또 버금상은 한천면(금오산전설), 춘양면(변치리 디딜방아), 이양면(쌍산의 소 의병놀이), 도암면(외따먹기), 이서면(뽕따러가세)이 뽑혔다.

화순군 주최로 열린 이번 큰잔치에서는 화순 13개 읍·면에서 '화서도와 대리석불 입상 전설' 등 다채로운 마당극과 민속놀이로 선보였다.

잊혀져 가는 전통 장례문화를 재현한 북면 '상여소리'민속놀이는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데다, 상주들의 곡소리가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해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완준 군수는 "화순 풍류문화 큰잔치는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강진, 내달부터 4개월간 수렵장 운영

강진군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작전, 군동면 등 군 일대 300여km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 가능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1인 각 3마리)과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 조류 7종(1인당 1일 각 5마리)이며 어치, 까치, 참새 등은 제한이 없다.

수렵이 제한된 곳은 인가 부근이나 도로로부터 600m이내 지역, 야생 동식물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군은 4개월간 수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렵인이 최대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건전한 수렵모습 조성을 위해 수렵장 관리인 4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안내와 불법수렵 단속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내년 2월 말까지 강진군청 환경팀(061-430-3276)을 방문하거나 팩시밀리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완도 '공원같은 쓰레기매립장'

주민편의시설 갖춘 친환경 명소로 조성키로

완도군 쓰레기매립장이 친환경적인 명소로 탈바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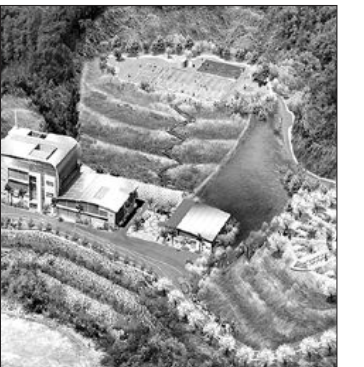
완도군은 총사업비 229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말 완공 목표로 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비롯해 침출수 처리시설, 세차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새롭게 설치한다.

기존 군 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00년에 시설해 가동하고 있으나 소각로가 노후되고 매립장의 수명이 다 돼 새로운 시설공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2년간 시설공사를 한 후 15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폐기를 종합 처리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명소로 탈바꿈한다. 완도군은 총사업비 229억원을 투자해 2010년 12월 말 완공 목표로 소각장과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비롯해 침출수 처리시설, 세차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새롭게 설치한다.

이런 사업을 민간에서 2년간 시설공사를 한 후 15년 동안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폐기를 종합 처리시설을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경적으로 설치하고 주변은 환경체험 명소로 꾸며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으로 가꾸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1364-8700, H.P. 010-4608-3700. Lists various legal services and auction items.

Advertisement for 태양광발전소 및 사업인수. Contact: 010-7219-7123. Promotes solar power plant acquisition and business takeover.

Advertisement for 다사랑(유통). Contact: 062-263-7335. Promotes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